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손길

해돋이 역사기행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해돋이역사기행

행정구역이 아닌
테마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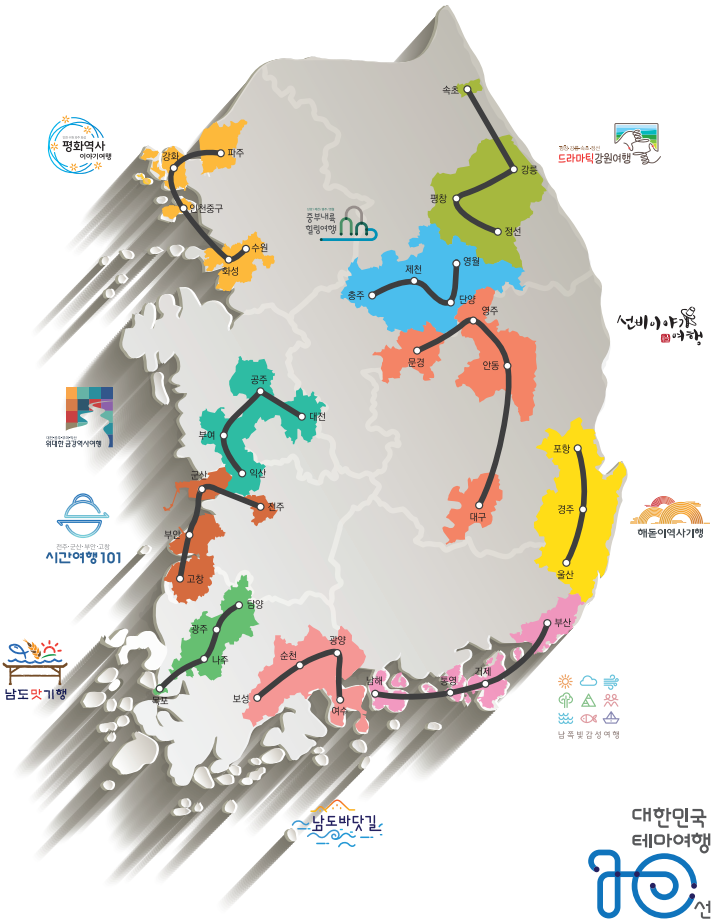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둘만의 로맨스를 위해서, 휴식과 쉼이 필요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찾으려고 긴 여정을 계획하고, 목적에 꼭 맞는 여행지를 발견하면 그곳이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도 비행기나 배에 올라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행이 꼭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몰랐던 멋진 곳이 내 주위에 있다면 굳이 멀리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멋진 곳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기에 미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지의 관점에서 다시금 살펴보고 그 가치를 재 조명해 보고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선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0개 권역을 선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권역에 있는 3~4개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개선하고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고품격 여행코스로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고품격 여행코스를 알리는 여행책자이자 가이드북입니다.

blog.naver.com/ktourbest10 instagram.com/ktourbest10 ktourbest10.visitkorea.or.kr

대한민국의 전국을 아우르는 총 39개의 도시, 10개의 색다른 테마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있게 만들 것입니다. 꼭 보아야 할 곳, 꼭 들려야 할 곳을 혹시나 놓치고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숨겨진 명소까지 남김없이 담았으며, 여행하는 동안 여행객 모두가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으로의 초대

04. 테마여행 10선 사업 소개

그곳의 분위기

10. 권역 테마 소개

그곳의 이야기

12. 포항

18. 경주

28. 울산

그곳의 기억

14-17. 포항
20-25. 경주
30-35. 울산
37. 보조코스

그곳의 재미

38. 축제
40. 쇼핑(음식, 특산물)

그곳에 머무르기

42. 숙박
44. 교통

역사는 이어져 내려와
밝은 희망으로 다시 솟아오른다

포항 호미곶

해돋이 역사기행의 코스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일출 명소인 울산,
포항, 경주를 연결하는 찬란함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역사는 살아있고
희망은 다시 솟아오른다

마거릿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주인공인 스칼렛 오하라는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주인공의 강인한 의지와 지치지 않는 삶에의 열정이 느껴지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양은 희망과 삶의 의지를 상징하곤 합니다. 매일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되며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새해 첫날의 일출을 보기 위해 해돋이 명소로 달려갑니다. 해돋이가 희망을 나타낸다면 역사는 지혜가 됩니다. "미래를 알려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피라"라는 명심보감의 글귀처럼 역사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되며 내일의 변화를 예상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주춧돌이 됩니다.

해돋이 역사기행은 일출과 역사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의 간절곶과 '상생의 손' 조형물로 유명한 포항의 호미곶은 새해의 일출을 보기 위해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는 일출 명소입니다. 천년 고도를 자랑하는 신라의 역사와 숨결이 담겨있는 경주 역시 해돋이 역사여행 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돋이 역사기행 권역은 빛으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 천 년의 역사가 되고 후세에게 삶의 지혜와 귀감이 되는 지역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우리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 또는 새로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여행길에서 의도치 않게 만나는 사소한 것들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동해의 바다, 떠오르는 태양, 신라의 금관, 산불산의 억새가 일렁이는 물결. 그 속을 여행하다 보면 빛과 역사가 주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해 뜨는 동해에서
뜨거운 활력을 느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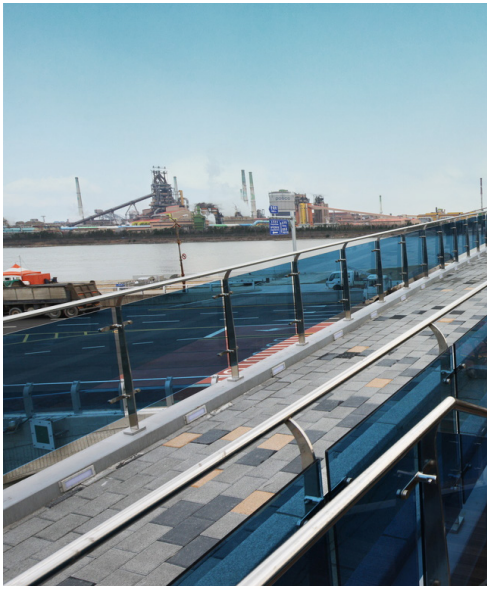
남구 오어사

포항은 대한민국 내륙에서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곳으로 경북 영일만의 동해와 인접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던 포항은 예로부터 형산강 하구와 해안의 자연경관이 뛰어나 아름다운 경관으로 손꼽히는 포항 8경이 있습니다.

동해와 인접한 해안에는 모래사장이 발달하고, 방풍림이 잘 조성되어 있어 주요 해수욕장들이 모두 포항 8경에 속하며 구룡포, 칠포, 월포, 화진 해수욕장 등은 해수욕은 물론 낚시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름철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송림이 울창하고 주변 경관이 뛰어나 전국에서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호랑이 꼬리'라는 뜻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호미곶은 넓은 바다 위에 홀연히 솟아있는 상생의 손과 새천년 기념관, 해맞이 광장 등이 있어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일출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1883년 조일 통상 장정 이후 일본인이 와서 살던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가옥을 기초로 조성된 거리입니다. 당시 요리점이던 "후루사또야"는 내부를 그대로 보존하여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인 가옥거리 역사관과 유카타 체험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속에 작은 일본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정취가 묻어나는 곳입니다. 포항 최대 규모의 죽도 시장은 각종 수산물과 채소, 과일은 물론 산지의 신선함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회 센터, 건어물 거리, 먹자골목 등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의 식도락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바닷길 산책을 원한다면 포항 운하를 추천합니다. 운하는 바닷길과 연결하여 옛 물길과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새롭게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항은 포항종합제철이라는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가 위치하고 있어 관광지로서는 큰 조명을 받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멋진 경관과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은 지금 포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며 기회가 되는 곳입니다. 포항을 방문한다면 우리가 지금껏 생각했던 포항과는 다른 숨겨졌던 매력을 직접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도시장

새벽 뱃고동소리와 경매를 부리는 손놀림. 죽도시장에는 힘이 있다. 경매가 끝나면 상인들은 출출한 배를 채우려 식당에 들러 '시락국'을 먹는다. 1950년대 시작된 시장은 동해안에서 제일 큰 규모다. 수산물은 물론 건어물과 농산물, 청과, 주전부리까지 없는 게 없다. 돌아다니다 발바닥이 아플 때는 시장 음식을 먹어보자. 숭덩 썰어낸 막회와 접시에 곱게 담긴 고래고기, 튤립처럼 피어난 문어까지 벌써 군침이 돈다. 대게와 개복치까지 먹을 수 있다면 최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13길 13-1

☎ 054-247-3776

포항운하

운하가 위치한 송도동은 본래 뻘 위에 갈대가 피는 섬이었다. 1968년 포항제철소가 건립되며 도시사업으로 샛강은 매립되었다. 주거부족이 해결되었지만 악취와 오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결국 갇혀있던 물길을 다시 열어주는 작업을 해야 했다. 2014년 준공된 포항 운하를 통해 형산강은 영일만을 지나 동해의 품에 안긴다. 다시 살아난 물길은 떼죽음을 당하던 물고기를 부르고, 어선을 들이고, 사람들을 모았다.

낭만은 운하를 타고 흐른다

포항운하관에서출발해 1.3km의 운하를 지나 형산강으로 돌아오는 원점회귀 코스는 샛강 하구에 줄지어선 어선들이 장관을 이루고 형산강에 들어서면 포항제철소의 육중한 용광로가 덮칠 듯 다가온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040 ☎ 054-270-5177

호미곶

한반도 지형상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호미곶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해가 뜨는 곳이다. 호랑이 힘의 근원인 꼬리에서 해를 보니 그 기운이 장대하지 않을 수 없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모래사장 위에 뒤엉켜 방어벽을 만든다. 황금빛 물결이 수평선에서부터 움직이면 호미곶은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낸다. 밀려드는 파도를 기암괴석이 막아 선다. 그 중에 불쑥 튀어나온 조형작품 '상생의 손'도 있다. 2000년 밀레니엄을 기념해 오른손은 해가 뜨는 바다에 왼손은 해가 지는 육지에 세웠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 054-284-5026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구룡포의 일제강점기는 유난히 길다. 포항의 풍부한 어장을 노리던 일본인들이 조선 후기부터 들락거렸다. 수산업자인 도가와 야사부로(十河彌三郎)는 조선총독부에 요청해 항구를 짓고 구룡포에 집을 짓고 살았다. 220여 채에 천여 명이 넘는 일본인이 머물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그들은 쫓기듯 일본으로 넘어갔다. 적의 소유였던 재산, 적산가옥만이 우두커니 남았다. 근대역사관을 비롯한 적산가옥 30여 채가 복원되어 근대문화역사거리로 재탄생 하였다. 일제강점기 약탈의 참상을 알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다. 그러니 순례하는 마음으로 마을을 둘러보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153-1 ☎ 054-276-9605

경주는 천년의 역사가 담긴 거대한 야외박물관이다

동궁과 월지(안압지)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의 수도로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돌아보기에 경주 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신라시대 왕과 귀족들의 고분이 모여 있는 "대릉원지구"와 신라시대에 천문을 관측하던 국보 31호 첨성대를 만날 수 있고, 통일신라 직후 만들어진 궁궐이자 큰 연못정원인 동궁과 월지는 통일 후의 신라 왕궁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주국립박물관은 신라역사관, 신라미술관, 옥외전시, 월지관, 종각, 수묵당, 고청지 뿐만 아니라 어린이 박물관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신라시대의 문화를 체험하고 아이들에게는 역사를 알려주기 좋은 교육의 장입니다. 불국사는 경주 토함산 기슭에 있는 신라시대의 사찰로 다보탑, 3층 석탑 등 많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굴 사찰인 석굴암은 신라인들의 신앙과 염원, 뛰어난 건축과 조각 기법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역사유적입니다.

경주에 이런 뛰어난 문화유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경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볼까요?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주상절리와 온 가족 누구나 무리 없이 트래킹 하기 좋은 해안길인 파도소리길은 아름다운 바다를 곁에 두고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경주의 사랑방이라 불리는 보문단지는 전 지역이 온천지구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해소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역사 책에서만 보았던 문화재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경주의 아름다운 자연까지 만끽한다면 가족 여행지로 이보다 훌륭한 곳이 더 있을까요?

보문정정

보문 관광단지

신라 명활산 옛 성터 아래 홍수와 가뭄을 대비한 50만평의 인공호수 주변을 1979년 관광단지로 개장했다. 산책길과 리조트, 호텔로만 이루어져 있던 예전과 달리 동궁원과 테마파크, 한옥으로 된 카페까지 복합문화단지로 다양한 변신을 하고 있다. 어느덧 입소문을 탄 경주월드에서 다양한 어트랙션을 즐기는 것도 방법.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 054-745-7601

대릉원/첨성대/교촌마을

대릉원

경주를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도시라고 한다. 대릉원은 그런 도시를 대표하는 장소다. 삼국사기에 '미추왕(味鄒王)을 대릉(戴陵)에 장사지냈다.'는 기록에 따라 이름 붙여졌다.

경상북도 경주시 계림로 9

☎ 054-779-8796

첨성대

첨성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다. 9.5m의 돌탑은 유려한 곡선을 자랑한다. 362개의 화강암 벽돌, 28개의 석축은 음력 1년과 28수의 별자리를 나타낸다. 첨성대는 돌을 접착제 없이 쌓아 올렸는데 견고함이 이루 말할 데 없다.

경상북도 경주시 첨성로 140-25

교촌마을

교촌마을은 경주에서 조선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향교 중심의 양반문화와 떡메치기 체험, 경주 토종견 '동경이'를 만나는 체험관도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교촌길 39-2

☎ 054-760-7880

국립 경주박물관

국립 경주박물관은 1913년 경주고적보존회로부터 시작된다. 조선인 경주 유지와 경주에 살던 일본인이 가진 수집품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며 박물관의 역할을 시작했다. 유적발굴에도 힘써 성덕대왕신종과 신라 금관을 발견했다. 신라유물을 전시한 신라역사관과 신라의 예술이 담긴 신라미술관, 동궁과 월지에서 발견된 유물을 볼 수 있는 월지관, 특별전시관이 있다. 성덕대왕 신종이나 불상, 석탑은 물론 그윽한 정취의 수묵당과 고청지도 놓치지 말자.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 054-740-7500

동궁과 월지

신라 문무왕 14년에 지어진 동궁은 왕자가 머무는 궁으로 월성의 동쪽에 있다. 해가 뜨는 동쪽에 두어 나라를 다스릴 태자임을 의미했다. 인공 연못의 진흙 속에 묻혀 있어서 공기와 접촉하지 않아 동궁의 유물은 오랜 시간 보존될 수 있었다. 동궁에서는 신심용왕이라는 그릇과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용왕전 건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태자가 용왕에게 직접 제사를 드린 흔적으로 용이 된 문무왕에게 태자가 다음 후계자임을 알린다는 뜻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102 ☎ 054-750-8655

불국사/석굴암

불국사

경덕왕 10년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경주를 '부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만들었다. 불교교리인 '부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형상화한 독특한 건축물이다. 강을 건너 수행을 뜻하는 33개의 계단인 청운교와 백운교를 지나 깨달음을 뜻하는 자하문을 열고 부처의 세계로 들어간다.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는 모습, 다보탑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임을 인정하는 다보여래를 상징한다. 대웅전에 도착하면 부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담긴 건축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를 거치며 일본의 불교신자인 가토기요마사의 방화로 불국사는 심각하게 파손되었다. 18세기, 승려와 지방 유림, 지방공무원까지 힘을 합쳐 복원했다. 불교와 유교 화합의 산물인 것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 054-746-9913

석굴암

석굴암은 규모뿐 아니라 건축, 수학, 기하학, 예술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신라 최고의 걸작이다. 불국사 뒤 토함산 해발 565m에 있는 석굴이다. 동동남 30도에 위치한 석굴은 동짓날 해 뜨는 방향과 일치해 음기가 빠지고 양기가 시작되는 날을 상징적으로 담았다. 석굴 중앙에 있는 본존불은 얼굴이 몸의 1/3크기로 안정감을 준다. 얼굴 뒤의 광배는 부처가 발하는 빛을 표현한 것이다. 광배는 보통 원형인데 비해 타원형을 띄고 있다. 연대와 같은 높이인 160cm의 사람이 아래에서 부처를 올려다보았을 때 각도가 좁아지는 원근법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다. 부처의 표정과 옷 주름 등 신라의 단단한 화강암으로 만들었다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다.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873-243 ☎ 054-746-9933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_ 유한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군사지역으로 분류되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었던 읍천 주상절리가 2011년 공개되면서 1년 뒤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이 조성되었다. 기암괴석과 자갈로 된 해안은 대부분 평지이며 가파른 길도 없어 누구나 걷기 쉬운 길이다. 일부 나무 데크로 포장되어 있거나 비포장 흙길을 걷는 재미가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얼굴을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_ 헬렌켈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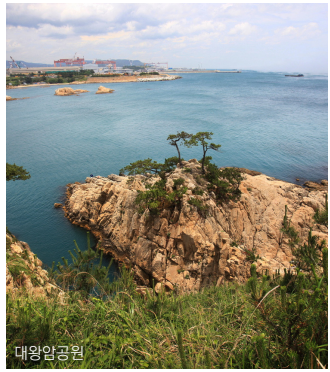
경주 동궁과 월지

대왕암공원

강을 품고 바다를 품고 일출을 품었다

울산은 태화강을 품고 있는 수변 도시이자 동해를 품고 있는 해변도시로 강과 바다의 정취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태화강 대공원은 태화강 강변을 공원으로 조성한 울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입니다. 공원에 자리한 대나무 숲인 십리대숲은 그 면적이 약 29만 m^2에 달하여 울산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서늘하게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쉼터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왕암공원은 동해 해안가에 위치한 해변공원으로 울산 12경 중의 하나로 손꼽히며 해송림과 대왕암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대왕암공원

남근바위, 탕건바위, 자살바위 등 재미있고 사연 많은 기암들이 가득해 각종 기암들을 감상하는 즐거움에 빠져들게 합니다. 또한 동해안 최고의 일출 여행지로 손꼽히는 간절곶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해돋이와 함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자랑하며 간절곶 등대, 소망우체통, 풍차 등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까지 갖추고 있어 평상시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입니다.

울산 하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래입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은 2015년에 조성되어 고래잡이 어촌이던 예전 장생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고래생태 체험공원입니다.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과 연계된 국내 유일의 고래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세계적인 고래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보 제147호의 문화재인 천전리각석은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의 바위그림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반구대 암각화는 사람과 짐승,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담긴 그림이 그려진 선사시대 유적으로 역사학계 및 고고학계로부터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울산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강의 정취와 바다의 정취를 모두 한곳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며 거기에 더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일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전리각석/반구대암각화

천전리 각석

천전리 각석의 바위 그림은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암각화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하단을 보면 신라의 서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천전리각석 또는 천전리서석곡이라고 부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2

☎ 052-229-7637

반구대암각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반구대는 신석기~청동기까지 복합적인 문양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고래사냥 기록과 고래의 종류와 생태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 052-229-0101

태화강대공원/십리대숲

태화강 대공원은 여의도공원 면적의 2.3배로 봄부터 가을까지 수백 종류의 꽃으로 장식되며 사철 푸른 대나무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다. 울산의 역사를 상징하는 태화루가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한 대공원은 고려중기 문장가인 김극기의 태화루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으로 푸른 산이 둘렀고 남으로 대나무 숲 물결이 휘감네."라는 문장이다. 십리대숲에 형성된 은하수 길은 마치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것처럼, 혹은 색색의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대나무 전체가 반짝반짝 빛난다. 대숲을 100리까지 연장한다고 하니 정말 은하수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내오산로 67 ☎ 052-229-6142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우리나라에 고래를 테마로 한 마을은 울산 장생포가 유일하다. 장생포는 만으로 되어 있는데다 수심까지 깊어 앞바다에 고래가 들어올 정도였다.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장생포 뿐 아니라 국내 모든 항구를 손에 넣고 정비했는데 이곳은 포경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해방 이후 계속해서 포경기지 역할을 하던 장생포는 1970년대 말 포경업이 전성기를 맞이했고 동시에 크게 번성했다. 고래잡이로 전성기를 보낸 당시 동네 모습으로 꾸며놓아 보는 재미가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1

☎ 052-226-0980

대왕암공원

대왕암 공원은 간절곶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 풍광이 좋아 새해가 아니더라도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여행자가 찾는 해맞이 명소다. 이곳은 문무대왕이 화장되어 뿌려졌다는 설이 있는 역사적인 곳이다. 그러나 대왕암공원은 공원이지 대왕암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왕암과 비슷한 바위섬이 있어서 대왕암공원이라 이름 지어졌으며 문무왕의 전설이 담긴 대왕암은 아닌 셈이다.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140

☎ 052-209-3753

간절곶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각오를 다지거나 소원을 빌기 위해 찾는 해맞이명소 중 인기 있는 곳이 간절곶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곳이다. 제일 빨리 뜨는 태양에 소원을 빌어보자. 대형 소망우체통은 1970년대 사용된 옛 우체통의 모습으로 2007년 해맞이 축제와 함께 설치되었다. 내부로 들어가 엽서를 쓰고 작은 우체통에 넣으면 소망우체통 소인이 찍혀 배달되어 아날로그 감성을 자아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1길 39-2 ☎ 052-239-6313

포인트. 프로포즈등대

울산에는 재미있는 등대가 많다. 그 중 간절곶에서 가까운 하트 등대는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인기다. 남·여 커플이 위치에 서면 각각 상황에 맞는 노래가 흘러 나온다.

1. 먼저 바닥에 깔린 하트 모양 센서 위에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서고
2. 이 고백을 받아들일 사람은 등대위로 올라가 등대에 설치된 하트모양 센서 위에 선다.
3. 그러고 나면 등대에 설치된 LED조명시설에 불이 반짝이며 들어온다.
4. 마지막으로 등대에 올라가 고백을 받은 사람이 다시 내려와 바닥의 하트모양 센서 다른 한 부분에 올라가면 등대에서 감미로운 프로포즈 음악과 함께 팡파르가 울려 퍼진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1-3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다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외고산 옹기마을

일제강점기 전부터 옹기를 굽던 마을이다. 경북 영덕에서 옹기공장을 하던 허덕만 선생이 전쟁을 피해 이곳에 와 터를 잡았다. 살림도 못 챙겨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에게 옹기는 필수였다. 1960년대에 옹기 장사가 잘되자 전국에서 도공이 모여들어 350여 명에 이르렀다.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국내 최대 옹기 집산지가 되었다. 옹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옹기아카데미가 운영되며 옹기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전시관도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 3길 36 ☎ 052-237-7894

역사는 항상
새롭게 다시 쓰이며
따라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

_ 칼 베커

파란 강물로

포항 죽도시장 → 포항운하 → 포항 포스코역사관 → 포항 한국로봇 융합연구원 → 포항 가속기연구소 → 경주 양동마을 → 경주 불국사 → 경주 민속공예촌 → 경주 엑스포공원 → 경주월드 → 경주 보문관광단지 → 경주 김유신장군묘 → 울산 주전몽돌해변 → 울산 테마식물수목원 → 울산 대왕암공원 → 울산 방어진항 → 울산 현대미포조선

동해 바다로

포항 죽도시장 → 포항 어촌체험마을 → 경주 연동 어촌체험마을 → 울산 정자항 → 울산 주전 어촌체험마을

응답하라7080

울산 태화강 나룻배 → 울산 태화강대공원 → 울산 십리대숲 → 울산 장생포 음식특화거리 → 경주 불국사 → 경주 석굴암 → 포항 오어사 → 경주 남산자구 → 경주 첨성대 → 경주 대릉원 → 경주 보문호수 → 경주 추억의 달동네 → 포항 일월지 → 포항 호미곶 → 포항 죽도시장/보경사

꿈을 키우는 특별한 여행

포항 로보라이프 뮤지엄 → 포항제철 → 포항 포스코역사관 → 포항 죽도시장 → 경주타워 → 경주 민속공예촌 →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 → 울산 언양불고기거리 → 울산대교 전망대 →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 경주 불국사

인생샷 투어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 포항 죽도시장 → 포항 루프탑카페 → 포항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 포항 호미곶 → 경주 대릉원사진관 → 울산 십리대숲 → 울산 태화강대공원 → 경주 황리단길 → 경주 역사유적지구 → 경주 중앙야시장 → 경주 동궁과 월지

산을 품고 바다를 품고 사람을 노래하다!

포항 불빛축제

'불과 빛의 도시' 포항에서는 해마다 대표적인 여름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린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가 포항을 상징하는 '빛'과 제철소 용광로를 상징하는 '불'의 이미지를 테마로 지난 2004년 포항시민의 날에 맞춰 불꽃쇼를 가진 것이 시작이다. 이후 국제규모 축제행사로 확대됐고 축제콘텐츠도 단순한 '불꽃'중심에서 탈피, 산업과 문화적 요소를 융합해 다채롭게 펼치는 화합의 축제이다.

시기. 8월 T. 054-289-7851

포항 불빛축제

*축제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울산 태화강 봄꽃 대향연축제

울산 태화강 봄꽃 대향연축제

경주 신라문화제

경주 신라문화제

한국 민족문화의 원류를 형성하게 한 신라문화의 발상지 서라벌의 옛터전에서 자랑스러운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문화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신라문화제가 열린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산재한 월성, 월정교, 동부사적지 등에서 7일간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는 영광스러운 신라문화를 되새기고 한국 문화의 원형인 신라문화를 되살리는 축제이다. '우주를 향한 신라의 꿈'이라는 주제로 천문학의 결정체인 첨성대를 통해 본 신라인들의 문명과 과학기술을 재조명하는 역사교육 체험축제가 될 것이다.

시기. 10월 T. 054-779-6072

울산 태화강 봄꽃 대향연축제

태화강 대공원은 단일규모로는 전국 최대규모의 수변초화단지로 매년 5월 태화강대공원 16만㎡에는 꽃양귀비, 작약, 수레국화, 금계국, 안개초 등 6천만 송이의 봄꽃이 활짝 피어나 아름다운 봄꽃들과 정원이 함께하는 봄꽃대향연이 펼쳐진다. 태화강 봄꽃대향연은 이곳 태화강 십리대숲과 태화강공원 초화단지에서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관람객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사로 봄꽃축하공연을 비롯해 봄꽃패션쇼, 풍성한 체험행사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화려한 야간 라이팅쇼를 구경할 수 있다.

시기. 5월 T. 052-229-3122

아침을 여는 햇살이 빚은 소박한 여행의 맛

포항-과메기

겨울철 냉동 상태의 꽁치를 내다 걸어 3~10일 동안 얼고 녹기를 반복해 말린 생선. 주로 미역이나 김과 함께 먹으며 고혈압, 동맥경화,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다.

경주-토마토

형상강 하류의 풍부한 유기물과 물빠짐이 좋은 토양, 일조량이 많은 곳에서 생산되어 과육이 풍부하다. 항산화작용과 해독작용 등에 효과가 있다.

울산-옹기

세계 유일 옹기 생산국가인 우리나라 생산량의 50% 이상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생산. 외고산의 경사와 함께 이 지역 흙의 높은 내화성, 따듯한 기후와 높은 일조량을 바탕으로 양질의 옹기가 생산된다.

숙박 안내

포항

애플트리 호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 100번길 7-5	054-241-1234	http://appletreehotels.com/pohang
베스트웨스턴 호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5, 1	054-230-7000	www.hotelpohang.co.kr/
베니키아 호텔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128	054-282-2700	www.benikea.com/

경주

141 미니호텔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41	054-742-8502~3	www.141minihotel.com
와담정	경상북도 경주시 천원1길 16-1	010-6571-3412	wadamjung.com
향단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길 121-83	010-6689-3575	yangdonghyangdan.modoo.at
소설재 (첨성대점)	경상북도 경주시 포석로 1050번길 46	010-7357-7412	www.soseoljae.com
베니키아 스위스로젠호텔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65-37	054-748-4848	www.benikea.com/

울산

어련당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61	052-290-3693	eld.junggu.ulsan.kr/	
신라스테이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00	052-901-9000	www.shillastay.com/ulsan/index.do	

KOREA QUALITY
한국관광 품질인증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소란?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 사업 범위 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품질인증 사무국의 인증을 받은 곳
*상기 숙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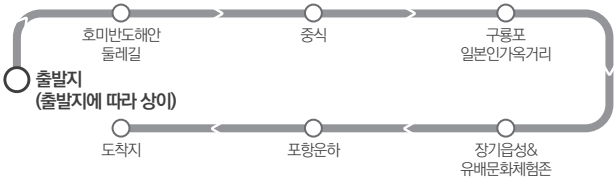
Best Night in Korea
베니키아

베니키아란?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인브랜드 사업
*상기 숙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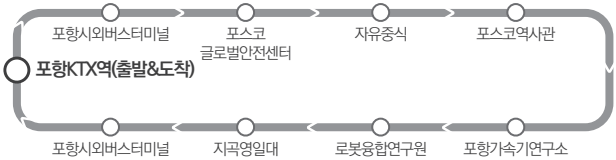
교통 안내

포항 시티투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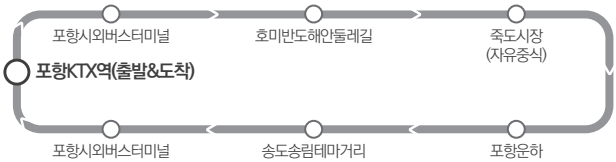
내고장 바로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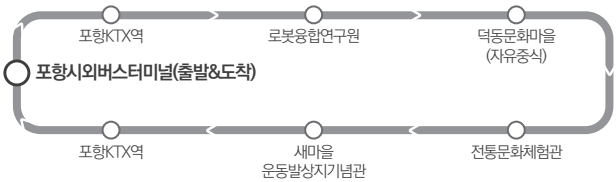
첨단과학코스



둘레길 도보여행



학습형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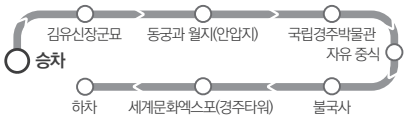


보훈 체험(8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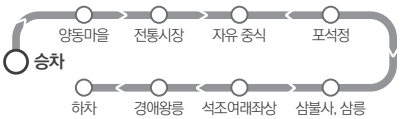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관광안내소 및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주 시티투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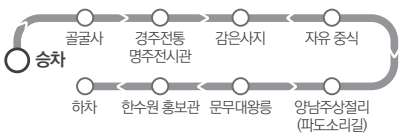
신라역사스토리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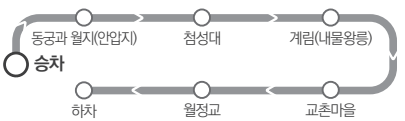
양동마을.남산투어(토요일만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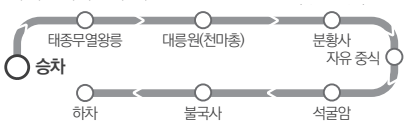
동해안투어



야간시티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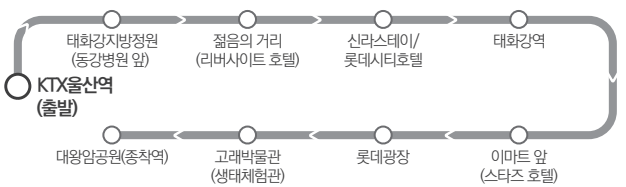


세계문화유산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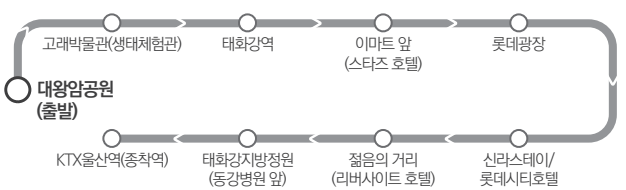


울산 시티투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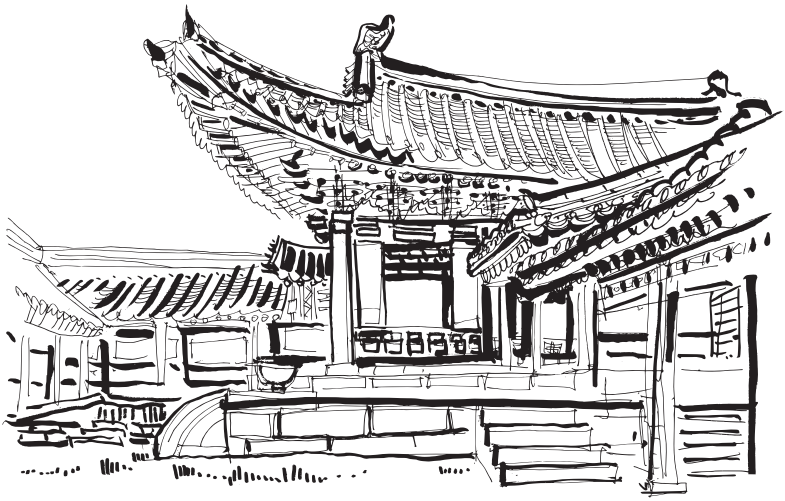
대왕암공원 방면



울산역 방면



*진행 코스 및 일정은 운영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발행처 한국관광공사
(26464)강원도 원주시 세계로10
TEL.033-738-3000

매일 뜨는 해지만
정작 해돋이를 본 것은
언제일까? 라고 한번쯤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다.
여행은 이렇듯 잊고 지내던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